



수능 성적 발표 ... 희비 엇갈린 고3 교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 배부일인 4일 오전 광주여자고등학교에서 그동안의 탐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긴 수능 성적표를 들여다보며 웃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예산·패스트 트랙·민생 법안 민주, 한국당 빼고 협상한다

‘4+1’ 공조로 국회 정상화

더불어민주당은 4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예산안·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4+1’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가동 방침을 공식화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 철회 등 입장 변화를 보여주지 않자 ‘4+1’ 공조를 통해 정기국회 정상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4면>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공식적으로 예산·검찰개혁·선거법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고, 이인영 원내대표도 “한국당이 끝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오늘 최고위에서 지도부가 대책을 함께 마련하고 단호한 대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체 여부를 결정하는 ‘변수’가 생겼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당장 ‘4+1’ 공조를 통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에 착수하는 한편,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선거제 개혁안은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50% 적용 안을 중심으로 협상 중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정의당 입장과 농어촌 지역구 축소 우려하는 평화당, 대안신당 입장을 모두 고려한 안이다. 비례대표 의석을 부여하는 정당득표율 기준은 패스트트랙 원안의 3%에서 5%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본회의 법안 가결 의석 수 확보에 꼭 필요한 평화당(5석)과 대안신당(10석) 등을 설득하기 위해 호남 지역구는 유지하고 수도권 지역구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253석인 지역구를 250석으로 줄일 경우 3석 축소가 필요하다. 세종과 경기 평택 등 분구 가능성이 있는 지역까지 고려하면 축소할 지역구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평화당과 대안신당은 호남을 한 석도 줄여선 안 된다고 하고 한국당은 영남을 줄이는 것에 반대하기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구 축소를 검토해야 한다”며 “서울 노원과 강남, 경기 군포와 안산 등이 거론되는 중”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의 기소심의위원회 설치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합의안이 거의 마련됐으나, 기소심의위 설치 방식과 권한 등을 두고 막판 조율이 필요한 상태다.

연동률 기자 tuim@kwangju.co.kr

1당 독식 폐해 ... ‘목불인견’ 지방의회

자신들이 만든 조례 무시하고 허술한 예산심사 취약계층 울려
자질·도덕성·전문성 결여 ... 경쟁과 감시 위한 제도개선 시급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신이 팽배하다.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는 커녕, 의원 자질, 도덕성, 전문성 결여 등으로 폐지론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자신들이 만든 조례를 의원들 스스로 무시하고 조례 제정 사실조차 모르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는가 하면,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 허술한 예산 심사로 비판을 받고 있다. 인물에 대한 검증없는 선거 구도, 경쟁과 감시가 없는 의회 운영시스템 등이 그 원인으로 ‘일당독식’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선거법과 관련법 개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내년도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으로 책정된 예산을 애초(17억7100만원)보다

18억8900만원 늘려 36억6000만원으로 증액, 통과시켰다.

집행부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의회 스스로 증액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케이스라는 게 도의회 안팎의 분석이다. 특히 국·공립을 제외한 민간어린이집에만 지급하기로 하면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당 상임위에 속한 의원의 배우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비판이 나온다.

도의회 상임위 요구대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민간어린이집 반별 지원금은 1개 반당 7만원이던 올해보다 3배 가량 많은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어린이집에 운영비만 퍼부으면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단견’을 드러내며 예산증액을 요청한 의원들의 행태가 한몫을 했다.

반면,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예산은 절반 가량을 국비 예

산 확보에도 불구하고, 삭둑 짤랐다.

집행부가 편성한 39억7699만원 중 19억8800만원을 삭감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이대로라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가정에 1인당 50장씩 제공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도의회 스스로 만든 조례조차 지키지 않는 ‘반반함’도 드러났다. 도의회는 최근 ‘의회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 의원 본인, 4촌 이내 친족,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재직 중인 법인 단체 등이 안전과 관련한 직무 관련자인 경우 미리 의정단에 신고하고 안전심사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하지만 도의회 보건복지위나 해당 도의원은 이런 조례를 어기고 미리 신고하지 않았으며 해당 도의원은 예산안 안전 심의에도 자리를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도의원은 “그런 조례가 있는지 몰랐다. 회의에는 참석했지만 예산 계수 조정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들 의원들은 또 도의회의 ‘공무국의 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명시된 45일 전 공무국의

출장계획서를 제출토록 한 규정을 무시했다가 해외연수 일정이 ‘되짜’를 맞는 망신을 샀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일각에서는 ‘특정 정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란 통식이 성립되다 보니 정당은 후보자 검증에 허술했고 그들끼리 담합하는 구조에 따라 ‘되행적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앞서 최근 ‘돈 봉투’ 행방을 놓고 벌어졌던 것으로 추정되는 민주당 소속 여성위원이 포함된 의원들간 몸싸움,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목포시의원들의 ‘환제 독감주사’ 사태, 광주서구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규칙을 무시한 해외연수, ‘가짜 출장’으로 물의를 빚은 광주북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선거법 개편과 맞물려 일당독재식 구조가 아닌,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검찰, 청와대 비서실 압수수색 ... 임의제출 형식

유재수 검찰무마 의혹 수사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검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4일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유재수 전 부시장 검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 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11시 30분께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검찰은 “형사소송법(제110조)상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인 대통령비서실의 압수수색은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며 “대상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압수수색의 방법은 대상 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6시간가량이 지난 오후 5시 35분께 종

료됐다. 다만 어떤 물증을 확보했는지 등 압수수색 결과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 검찰은 전했다.

유 전 부시장 검찰 무마 의혹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어느 수준까지 진행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찰자료와 보고문건 등을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5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MUSASA
판타지
페스티벌

한국 고전 신화 캐릭터의 부활!
대형 테크놀로지 마살아트 판타지

2019. 12. 20. - 12. 21.
금 19:30 토 15:00, 19:0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1

예매문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홈페이지(www.acc.go.kr) / 콜센터(1899-5566)

출판 김신호 주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관 아시아문화원 제작 ㈜쇼앤아트